



한인매일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한인매일 연속 보도

반성없는 이임걸 경찰영사 교민들의 자발적 탄원 가장

영사 본인의 국감 자백 부인, 현직 국회의원과 외교부 고위직도 폄하 탄원인가? 모함인가?

탄원서란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하거나 타인을 모함하면 오히려 탄원 대상자의 처벌이 가중되며 탄원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제의 탄원서는 탄원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 영사 이임걸과 공관장 전비호 대사까지 비난의 중심에서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 탄원서는 경찰 영사 이임걸의 "직무유기 사실"을 여전히 "은폐하고 미화함"은 물론 "억울한 옥살이 중인 자국민 측을 계속 모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멕시코 현지 공관 국감에서 밝혀진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동 탄원서에 있는 "방문 국감과 본국 외교부 국감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인 호언과 호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위협 수위를 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현직 설 훈 국회의원이 직접 멕시코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와 이에 대한 본국에서의 적극적 의정 활동마저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필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과 이 탄원서를 실제로 작성한 엘코레

아노의 사주 임성민은 같은 종교 단체 소속입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의 정식 의정 활동을 탄원서를 통해 비하하라고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짐작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는 공관장의 관리 감독 문제와도 직결되는 바 전비호 대사도 이 허위 탄원서 행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동 탄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소음"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서 한동안 동포 대사가 주축이 된 외교부의 가시적 노력마저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 영사 이임걸은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를 야기한 Ⅱ 주점 사건 관련 상습적으로 외교부 영사국에 허위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 중 압권은 역시 멕시코 검찰의 항고를 야기한 "영사 진술서"의 존재를 고의로 은닉한 것입니다. 결국 동 허위 보고의 발각이 발단이 되어 경찰 영사 임기 중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이 멕시코 검찰에 출두 시 서명한 문제의 "영사 진술서"에는 멕시코 검찰이 조작한 1차 진술서의 모든 내용과 작성 과정이 합법이라는 경찰 영사 이임걸의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허위이나 내용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경찰 영사가 이에 서

명한 치명적 업무 과실은, 쉽게 말해 "수사에 임회한 대한민국의 경찰 영사가 합법을 인정하고 자필 서명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라면서 멕시코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은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를 야기했으며 동시에 그의 연내 석방 기대도 물거품이 되게 한 이중의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정확한 팩트임에도 엘코레아노 발행인 임성민은 "멕시코 교민 사회는 경찰 영사 이임걸의 재임 기간 직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표창으로 수훈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탄원서에 포함시켜 이를 읽은 교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엘코레아노는 "우리 교민 사회에 이처럼 제대로 일했던 공직자가 무참히 처벌을 받는 전례가 남겨 진다면" (엘코레아노 2016. 12월 12일) 이라는 왜곡 보도를 통해 경찰 영사 이임걸의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 행위를 적극 은폐하는 공범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엘코레아노 발행인 임성민은 동 탄원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한 공직자의 안타까운 조기 귀임을 보며 선량한 의미로 그의 앞길을 걱정해 주는 교민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있는 탄원서" (엘

코레아노 2016. 12월 12 & 19일) 라고 하면서 임성민 본인이 주축이 되어 조작한 사기 내용을 여전히 교민들의 의사로 가장하는 종교인 임성민의 음흉한 민 낮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적극 참여한다는 엘코레아노의 보도는 거짓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잘 알려진 멕시코 시티에서는 공개 서명이 불가능하므로 동 사건 내용을 잘 모르며 엘코레아노 찌라시가 집중 살포되는 몬테레이 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도 앵벌이 하듯 탄원서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 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알고 있는 교민들과의 마찰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멕시코 현지 국감을 이끈 국회의원들을 비롯 감사원, 외교부 그리고 동 사건을 심층 보도한 한국의 주요 매체가 확인한 팩트는, "경찰 영사 이임걸은 본인의 직무유기로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를 야기했으며 동시에 멕시코 검찰에 항고 빌미를 제공해 자국민의 석방 또한 지연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탄원서는 자국민을 나라에 떨어뜨린 경찰 영사의 직무유기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

멕시코시티 기상 정보

오늘	최고 : 23	
내일	최고 : 23	
	최저 : 10	
	최저 : 12	

환율안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멕시코 페소 (Banamex)
Compra 20.25 Venta 21.00
원화 (외환은행)
사실때 1228 / 파실때 1185

긴급 전화

앰블런스 065
경찰서 066
소방서 068
전화번호 안내 040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안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5번 / 6번	1월-2월, 7월-8월
7번 / 8번	2월-3월, 8월-9월
3번 / 4번	3월-4월, 9월-10월
1번 / 2번	4월-5월, 10월-11월
9번 / 0번	5월-6월, 11월-12월